

작년 실적반등 성공... '자본정상화 계획' 신뢰 회복의 변수

롯데손보, 작년 당기순익 112% ↑
금융위, 경영개선요구 조치 의결
“자본건전성 관리강화 사전 예방”
1년6개월 간 개선작업 이행해야

롯데손해보험이 지난해 실적 반등과 장기보험 중심 체질개선 성과를 발판으로 다시 한 번 시장의 시험대에 올랐다. 수익성과 미래이익 지표는 개선됐지만, 금융당국의 경영개선요구 이후 자본정상화 계획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하게 내놓느냐가 올해 회사의 신뢰 회복과 향후 행보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지난해 실적과 건전성 지표에서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였지만, 감독당국의 후속 조치에 따라 이제는 그 반등을 자본정상화로 연결해야 하는 국면이다. 연말 숫자로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당국



롯데손해보험 사옥.

/롯데손해보험

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경영개선 로드맵을 다시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롯데손보의 2025년 연간 당기순익은 5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9% 늘었고, 영업이익은 647억원으로 108.4% 증가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분기 '도달 연령별 손해율 가정'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일시적 영향이 있었지만, 2분

기부터는 안정적인 실적 흐름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보험 본업의 미래이익 지표도 개선됐다. 지난해 보험계약마진(CSM) 상각이익은 2139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고, 기말 CSM은 2조4749억원으로 1년 전보다 늘었다. 연간 신계약 CSM도 412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잠정 지급여력(K-ICS) 비율은 159.3%로 1분기 119.9% 대비 39.4%포인트(p) 상승해, 수익성과 자본지표가 함께 회복되는 흐름을 나타냈다.

다만 이번 금융당국 조치는 이런 연말 반등 지표와는 별개로, 앞선 적기시정조치 절차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구체성·실행가능성·근거 등이 부족하다며 불승인했고, 지난 4일 정례회의에서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자본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이라며 “롯데손보의 경영상태가 추가로 악화돼 조치 수준이 상향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향후 2개월 안에 자산 처분, 비용 감축, 조직 운영 개선, 자본금 증액, 매각계획 수립

등을 담은 새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새 계획이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롯데손보는 1년 6개월 동안 이에 따라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결국 지난해 확인된 실적 반등을 자본정상화와 재무 신뢰 회복으로 이어갈 수 있느냐가 롯데손보의 다음 단계 성패를 가를 핵심이다.

법적 대응보다는 정상화 수순에 무게가 실리는 점도 눈에 띈다. 롯데손보는 지난 2월 13일 금융위의 경영개선권고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했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당국과의 소송전보다 새 경영개선계획 재정비와 자본정책 마련에 회사의 무게중심이 옮겨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자본건전성 개선을 중심으로 사업 기반 강화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metro

대기업 중심 직장금고 '배당잔치', 지역금고 '축소·중단'

상호금융 금고 '배당 이용'
직장금고, 10%대 고배당 기초 이어져
'부동산 침체' 지역금고 수익성 악화
직장-지역 손익차에 배당 격차 확대

상호금융권에서 금고 간 배당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 중심 직장금고는 두 자릿수 배당을 유지하는 반면, 지역 금고는 배당을 줄이거나 없애고 있다.

18일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순이익이 줄어 들고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금고가 10% 이상의 고배당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표적인 곳이 케이비증권 신용협동조합이다. 케이비증권 신용협동조합은 지난해 결산 기준 출자 회원에게 12.97%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년 대비 3.71%포인트(p) 낮아진 수준이나, 통상 2~3% 수준인 전국 신협 평균 배당률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벌어들인 수익 중 지급된 배당액을 나타내는 배당성향은 90%다.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신용협



대전 신협중앙회관 전경.

/신협중앙회

동조합 역시 같은 기간 배당률을 12%로 결정했다. 배당성향은 98.6%로 전년(87.3%) 보다 상승했다. 한국거래소 신용협동조합도 9.03%로, 높은 수준의 배당률을 책정했다. 배당성향은 90%다.

새마을금고에서도 직장금고 중심으로 고배당 기초가 지속되고 있다.

에스케이하이닉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결산 기준 총 17.2%의 배당금을 책정했다. 새마을금고 평균 배당률보다 약 5배 높은 수준이다. 기본 출자배당 12.8%에 이용고배당 평균 4.4%포인트(p)가 더해졌다.

이용고배당은 조합원의 이용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배당을 의미한다. SK하이닉스 새마을금고는 지난 2012년부터 출자배당에 이용고배당을 추가 책정해 지급해 오고 있다.

온그룹재단 새마을금고도 출범 2년 만에 조합원들에게 10%의 배당을 지급한다. 지난 11일부터 지급된 배당금 총액은 약 1억6700만원으로, 혜택을 받은 출자 회원은 1105명에 이른다.

지역 금고 상황은 사뭇 다르다. 대부분의 금고가 순이익이 줄면서 배당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는 곳이 늘고 있는 것.

충남 천안시에 있는 천안중앙신용협동조합은 지난 2024년 결산 3.8%의 배당을 실시하다 이듬해인 2025년 배당을 중단했다. 2024년 배당성향은 168%에 달했었다. 충남 아산시에 있는 한울신용협동조합도 배당을 중단했다. 직전해 배당률은 0.24%에 배당성향은 90.3%였다.

배당을 축소할 곳도 있다. 대표적으로 충남 예산군에 있는 예산신우신용협동조합은 배당률을 3.91%에서 3.27%로 축소했다. 배당성향도 44%에

서 25.7%로 줄었다.

직장금고의 경우 해당 기업 직원만을 고객을 삼는 만큼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금고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는 반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역금고의 수익성은 더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부실 및 손실이 나는 금고를 대상으로 배당을 제한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리면서 손실이 난 금고는 배당을 아예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상호금융업계 관계자는 “직장금고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직장 금고가 많다. 때문에 주이용 고객들이 소득 수준이 높아 예금이나 대출을 이용하는 규모가 크다”며 “반면, 지역금고의 경우 배당이 쉽지 않다. 예전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는 직장금고와 기업금고의 배당률 차이가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점차 직장금고와 지역 금고 간 손익 차이가 커지면서 배당 성향 차이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래미안 엘라비네' 조감도.

/삼성물산

방화동 '래미안 엘라비네'
1순위 3426명 몰려
청약 경쟁률 25대 1

서울 강서구 방화동 '래미안 엘라비네'가 1순위에서 평균 25대 1의 청약 경쟁률로 마감됐다. 높은 분양가에도 3400명 이상 몰리며 실수요자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7일 진행된 래미안 엘라비네 1순위 청약에서 137가구 모집에 3426명이 접수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유형은 59㎡B 타입이다. 5가구 모집에 1144명이 청약에 나서며 경쟁률 228.8대 1을 기록했다. 전용 44㎡ 역시 7가구 모집에 981명이 신청해 140.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용 76㎡는 15.7대 1, 전용 84㎡A는 16.6대 1이었다.

지난 16일 진행된 특별공급에서는 135가구 모집에 4098명이 몰리며 30대 1 경쟁률을 보였다. 역시 전용 44㎡와 59㎡B 타입 등 중소 규모 평형을 향한 관심이 높았다.

분양가는 높은 편이다. 44㎡ 8억4800만~9억2000만원, 59㎡ 13억5600만~14억2900만원, 76㎡ 15억5500만~16억8800만원, 84㎡ 17억300만~18억4800만원으로 책정됐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16층, 10개 동, 총 55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전용 44~115㎡ 272가구가 일반 분양이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국토부, 청년 월세 20만원씩 2년간 지원

30일부터 접수... 6만명 선정

정부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 사업으로 시작됐지만 최근 월세 상승과 취업난 등을 고려해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올해 전국에서 약 6만명의

신규 수혜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청년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자산 4억70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다.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9월에 발표한다. 지원금은 5월부터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성채리 인턴기자

하나은행, AI 기반 신용평가 도입

기업대출 업무시간 획기적 단축

하나은행은 기업금융의 인공지능 전환(AI) 가속화를 위해 생성형 AI 기반의 기업 신용평가 심사의견 생성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전(全) 영업점에 전면 도입했다고 18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대출 취급 시 필요한 기업 신용평가의 심사 종합의견 작성을 생성형 AI 기반으로 자동화하여 업무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생산성을 높였다.

/나유리 기자 yul115@

'기업 신용평가 심사의견 생성 시스템'은 기업의 재무제표, 업적 정보, 산업 동향 등 다양한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외감 기업과 비외감 기업의 신용평가 과정에서 필요한 심사의견 초안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기존에는 직원들이 기업 신용평가 심사의견 작성을 위해 기업 지표 분석과 서술형 의견 작성에 평균 30분 이상이 소요됐으나, 이번 시스템의 도입으로 심사의견 초안을 약 10초 만에 생성할 수 있게 됐다.